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K. Reiss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이 상 빈
(동국대-서울)

1. 머리말

비록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부의 통번역 교육 과정은 그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번역과정의 경우에는 운영 교과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다 정교해지면서 교육과정 전반이 전공자의 다양한 필요(needs)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가령, 김순영(2006: 30)이 확인한 2006년 통번역학 전공 설치 대학의 학부번역교과목을 4년이 지난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A대학은 「번역연습 1/2/3/4」 대신 「정치번역」, 「경제·통상번역」, 「통번역입문」 등과 같이 보다 구체화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B대학의 경우에는 번역의 이론과 실재를 융합시킨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학부의 번역교과목은 연계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각 대학의 학부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기

술번역, 「문학번역」, 「영상번역」, 「시사번역」, 「미디어번역」 등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작 이러한 과목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본(선수) 과목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에서는 「통번역입문」이나 (너무나 포괄적인 이름인) 「일반번역」 등의 과목이 이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러한 과목들이 향후 다양한 텍스트를 다루게 될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다. 또한 동일한 기초과목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 없이 교사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나 통역과 번역을 함께 다루고 있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속한 대학의 영어학부에서는 번역교과목 간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기초번역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텍스트 유형과 번역」이라는 수업을 신설·운영해 왔다. 본 교과목의 주요 대상은 번역과정에 입문한 학부생(2학년)들이며, 수강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번역해 봄으로써 향후 문학번역, 영상번역, 시사번역 등으로 세분화 될 번역교과목들을 간단하게나마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 1학기에 개설된 본 수업과 관련하여 필자의 수업 구상·운영·평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텍스트 유형론(text typology)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라이스(Reiss 2000)의 텍스트 유형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한 영한번역수업을 구상·운영한 뒤, 수업관찰, 자료분석, 설문지법 등을 이용해 본 수업을 평가·분석해 보았다.

2. 텍스트 유형론과 번역교육에 관한 연구

텍스트 유형론은 번역교육의 도구(didactic instrument)로도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관련학자들은 텍스트 유형론을 통해 번역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티姆(Hatim 2001)에 따르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텍스트 유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먼저 에머리(Emery 1991)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텍스트 유형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Crystal & Davy 1969; Hatim 1984; House 1981; Werlich 1976;

Zydatiss 1983 등)을 검토하면서 텍스트 분류의 기준으로 “도메인(domain)”이라는 요소를 활용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이론들은 텍스트 유형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기능(function)”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유형을 구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568)는 이유로 거부한다. 결국 그는 몇 가지 언어학 개념을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세우고 이 속에서 도메인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 분석을 논의한다.

그러나 하팀(2001: 174)의 지적처럼, 에머리가 논의한 일부 내용들은 지난 60~7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텍스트 유형’ 및 ‘기능’에 관한 개념들도 오늘날의 텍스트 유형 연구와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에머리(1991)에 주목하지 않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텍스트 유형과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이론적인 담론에만 머무르고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적다는데 있다.

이에 반해 하팀과 메이슨(Hatim & Mason 1990)은 텍스트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텍스트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텍스트 유형을 “논증적 텍스트 유형(argumentative text type),” “설명적 텍스트 유형(expository text type),” “지시적 텍스트 유형(instructional text type)”으로 분류하고, 논증적 텍스트 유형의 경우 “반대논증형(counter-argumentation)”과 “일괄논증형(through-argumentation)”이라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고 설명적 텍스트 유형의 경우 “묘사(description),” “서술(narration),” “개념적 설명(conceptual exposition)”을 추가한다. 또한 텍스트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과 “지배적인 맥락 초점(dominant contextual foc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일 텍스트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의 텍스트 유형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배적인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텍스트의 1차적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팀과 메이슨의 연구는 텍스트의 유형을 비교적 간단하게 분류하고 있고 학생들이 참고할만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다기능성, 수사의 목적(rhetorical purposes), 담화전략, 장르의 구조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학부생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가르시아 이스끼에르도(García Izquierdo 2000)는 하팀과 메이슨(1990, 1997)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형과 관련된 간단한 실험을 수행한다. 그녀는 BA번역 과정에 있는 1학년 학생 79명에게 하팀과 메이슨의 텍스트 유형론을 설명하고 모국어(스페인어)로 쓰인 두 개의 텍스트를 제시한 후, 각 텍스트가 5가지 유형(설명적, 논증적, 지시적, 다기능적, 기타)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그녀는 이 실험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형의 개념과 번역교육의 상관성을 논하고, “번역자가 텍스트의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번역을 생산한다”(291)라고 주장한다.

가르시아 이스끼에르도의 연구는 텍스트 유형과 번역교육의 상관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하팀과 메이슨의 이론을 개략적으로만 사용한 후 주된 논의를 번역이 아닌 모국어 텍스트 분석에 맞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처럼 텍스트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나름의 텍스트 유형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유형론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키는 실험적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방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해당 이론을 국내의 교육상황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때로는 이론적 틀이 난해하여 언어학, 번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부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국내의 학부번역교육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고, 교육 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텍스트 유형별로 개략적인 번역방법을 제시하는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

3. 라이스(K. Reiss)의 텍스트 유형론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번역과 텍스트 유형의 상관성을 비교적 쉽게 제시하고 있는 라이스(2000)의 텍스트 유형론을 살펴 본다. 다만, 라이스의 이론 또한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만큼 (Munday 2008: 74-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방향

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 텍스트 유형과 번역방법

라이스(2000)는 칼 뷔러(Karl Bühler)가 제시한 언어기능의 삼분법을 원용하여 텍스트의 유형을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 작용적 텍스트(operative text),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로 분류한 후 추가 유형으로 미디어 텍스트(audiomedial text)¹⁾를 포함시켰다.

라이스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텍스트 유형별로 언어기능, 언어차원(language dimension), 텍스트의 초점(text focus)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번역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라이스가 제안한 개괄적인 번역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도서, 안내서, 보고서 등과 같은 정보적 텍스트는 논리적이고 내용 중심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지식적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평이한 산문체로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명시화(explicitation)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연설문, 설교문, 광고 등과 같은 작용적 텍스트의 번역은 원하는 반응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의 등가(equivalent effect)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셋째, 수필, 소설, 시 등과 같은 표현적 텍스트는 미학적이고 형식 중심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원저자의 관점에서 번역해야 한다. 넷째, 영화자막 등을 포함한 미디어 텍스트는 언어외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언어와 시청각 매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라이스가 제시한 텍스트 분류법에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작용적 텍스트로 꼽히는 광고의 경우 무조건 작용적 텍스트로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광고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광고 수신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어떤 광고에서는 언어유희(wordplay)와 같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독특한 구문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텍스트가 가지는 미학적 성격은 ‘효과의 등가’와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라이스 자신도 시인했던 것처럼 텍스트의 유형이 항상 순수한 형태

1) 라이스는 후에 “audiomedial” 대신 “multimedial”(번역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Reiss 2004: 172) 때로는 텍스트의 유형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티프와 메이슨(1990)이 지적한 것처럼 지배적인 맥락 초점을 기준으로 텍스트의 1차적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기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텍스트의 최종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2차적 유형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번역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결국, 번역 교사와 학생들 모두 언어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혼성형(mixed-form) 텍스트²⁾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혼성형 텍스트를 번역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배적인 수사기능(rhetorical function)을 파악하여 텍스트의 1차적 유형을 분석하고, 텍스트의 부수적 기능이 지배적인 수사기능에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혼성형 텍스트와 번역

혼성형 텍스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기능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학부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혼성형 텍스트 역시 번역시장에서 요구되는 텍스트 유형이기에 학부생들 또한 혼성형에 어느 정도 노출될 필요가 있다.

혼성형 텍스트와 관련하여 그간 국내 학부의 일반번역 수업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었던 텍스트로는 ‘금융·경제 기사’가 대표적이다. 신문·잡지 기사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 구하기가 용이하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텍스트이기에 그동안 거의 모든 번역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금융·경제 기사는 복잡한 은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글의 논리상 비유적 표현의 번역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때도 있다(먼데이 2008: 75). 다음 글³⁾은 필자가 몇 년 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번역수업

2) 극단적으로 말해 모든 텍스트를 ‘혼성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3) 기사전문: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000672,00.html?promoid=googlep>

시간에 활용했던 경제기사의 일부분이다. 텍스트 곳곳에 비유적 표현이 숨어 있어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일반기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re You Worried Yet?

Think of yourself flying across the country. An engine starts sputtering; cause for alarm, sure, but the pilot does that folksy number--“Aw, shucks, little problem here”--and assures you the others can take the strain. Then a second engine goes out; the sweat trickles down your neck, but you reckon you’ll make it to the ground safely. But if the third, and then the fourth, flame out...

(A) **The global economy hasn’t crashed just yet.** But a worldwide slowdown is giving analysts everywhere a bad case of the jitters. The key reason: this, says Robert Hormats, vice chairman of Goldman Sachs International, is “the first synchronized downturn since the 1980s,” when (B) **high interest rates squeezed the world economy like an orange.** During the last U.S. recession, 10 years ago, Europe was in its post-cold war euphoria, while the Asian economies were the stuff of miracle. By the time (C) a financial crisis declawed the Asian tigers in 1997-98, the U.S. economy was in the middle of its technology boom.

This time around, (D) **both the U.S. and German economies are flatlining**, while that of Japan continues its slow, downward spiral. The Japanese unemployment rate has risen to 5%, while the Nikkei stock market index last week touched lows not seen since 1984. (E) **The world’s three most powerful engines are out of juice.** Worry. (알파벳 표기와 강조는 모두 필자의 것임)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첫 단락부터 세계경제의 상황이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의 내용상 “비행기”는 세계경제를 상징하고 이 비행기를 부양하는 거대한 엔진들은 (규모 순서로 보았을 때) 각각 미국경제, 일본경제, 독일경제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비유는 기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첫 단락에서 사용된 비유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In today’s planes, one really strong engine can get you safely to your destination. But expect a bumpy ride.”). 결국 이 기사에서 활용

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은 전체기사의 성격과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기사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도 첫째 단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령, (A)에서는 전 단락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를 비행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B)에서는 “오렌지”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C)에서는 아시아의 신흥경제대국을 호랑이로 비유하면서 외환위기가 호랑이의 “발톱을 뽑아버렸다(declawed)”고 말한다. 한편 (D)에서는 미국경제와 독일경제를 “사망 직전의(flatlining)” 환자로 비유하고 있으며, (E)에서는 미국·일본·독일 경제를 연료가 떨어진 세 개의 “엔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번역할 때에는 정보적 가치에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산된 번역문은 원저자의 의도와 표현적 가치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의 텍스트를 번역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의 표현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여 적절한 번역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때 이른 걱정인가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하나의 엔진이 덜컥 소리와 함께 멈추더니 비상등이 켜진다. 하지만 조종사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른 엔진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을 안심시킨다. 그때 두 번째 엔진이 꺼지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지만 당신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엔진까지 멈추고 불길마저 치솟는다면?

(A) 세계경제는 아직까지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예사롭지 않다고 말한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로버트 호매츠 부회장은 현재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980년 당시 (B) 높은 금리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며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3년간 지속되었다. 미국이 경기불황에 빠졌던 1991년, 유럽은 냉전 후의 행복감에 빠져있었고, 아시아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C) 반면 1997년 ‘아시아의 용들’이 금융공황을 겪을 당시, 미국은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D) 현재, 미국과 독일의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마저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실업

률은 5% 상승했고,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198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 세계의 경제 3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걱정이다. (알파벳 표기와 강조는 모두 필자의 것임)

위의 번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혼성형 텍스트의 번역은 단순히 내용 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비록 본 기사가 언어의 1차적 기능 면에서 정보적 텍스트에 속하지만 번역자가 원문의 표현적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글 전체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있다. 따라서 혼성형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텍스트의 1차적 유형과 부수적 유형을 파악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적 언어기능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4.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을 고려한 학부번역수업

4.1 텍스트 유형의 배열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을 학부의 번역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 유형의 순서(sequence)를 결정해야 한다. 즉, 라이스가 연구 초기 단계에서 간과했던 혼성형 텍스트를 포함해 총 다섯 가지의 텍스트 유형을 어느 순서대로 학습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켈리(Kelly 2005: 113-129)의 지적처럼,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인 학부생들의 번역능력, 텍스트에 대한 친숙도, 번역시장의 수요, 텍스트 유형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정보적 텍스트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비교적 자주 번역해 왔던 유형이다. 또한 그 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고 번역시 일반적으로 평이한 산문체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번역의 제약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전체 교육기간 중 정보적 텍스트를 가장 앞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보다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번역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의 종류(신문, 참고도서, 계약서, 안내서, 보고서, 사용 설명서 등)가 매우 다양하고 해당 번역의 수요도 많은 만큼, 정보적 텍스트에 대한 교육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용적 텍스트는 원저자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하게 담아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적 텍스트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갖는다. 다만 작용적 텍스트의 경우 학부 단계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번역의 수요 또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보적 텍스트의 경우보다 적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한편 번역의 성격 면에서 표현적 텍스트 또는 미디어 텍스트보다는 정보적 텍스트와 유사하므로 위치상 정보적 텍스트 다음에 배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표현적 텍스트의 경우 번역과정에서 텍스트의 미학적 특징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어려워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현적 텍스트의 번역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번역능력(경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 좋고, 그 교육기간도 약간의 여유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미디어 텍스트의 경우에는 번역과정에서 언어외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번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다만 번역의 난이도에 비해 학생들이 친숙해하고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디어 텍스트를 수업의 중·후반부에 배치하면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지쳐가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성형 텍스트는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 수사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유형의 텍스트보다 번역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혼합의 조합이 텍스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텍스트 유형을 모두 살펴본 후 혼성형 텍스트로 넘어가는 것이 수업진행 면에서 용이할 것이다. 가령, 앞서 살펴본 경제기사의 예처럼 해당 텍스트가 정보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학생들은 먼저 두 가지 텍스트 유형을 개별적으로 접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학부의 일반번역 수업을 텍스트 유형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친숙도, 학생들의 번역능력, 시장의 수요, 텍스트 유형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텍스트의 유형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먼저 정보적 텍스트를 학습하고 이어 작용적 텍스트와 표현적 텍스트의 순으로 나아가되,⁴⁾ 미디어 텍스트는 중·후반부에 배치하고 혼성형 텍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학습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을 고려한 학부번역수업의 뼈대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을 고려한 학부번역수업의 흐름



다만, 곧 이어질 절 4.2에서는 라이스(2000)가 주장한 “기본 텍스트 유형(basic text types)”이 정보적·작용적·표현적 텍스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을 먼저 학습하는 <<A형>>을 기준으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2 주차별 교육 및 텍스트의 종류

본 연구가 구상하고 있는 번역수업의 목적(objectives)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에 따라 원문의 텍스트 유형을 인지·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문화권의 관점에서 적절한 번역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번역능력을 학습한다고 보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방법의 차이를 체감하고 번역능력의 기반을 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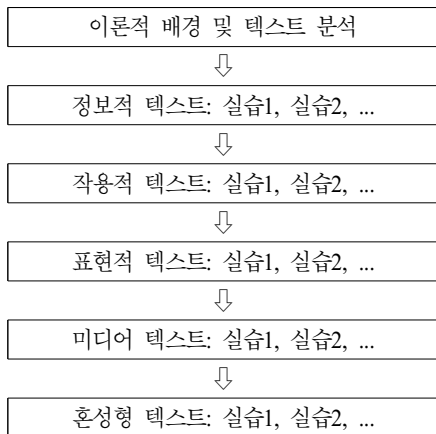
4) “다른 연구자들(Reiss 1976, Newmark 1988, Reiss, Nord, 1988/1991)은 표현적, 정보적, 작용적(vocative) 기능이라는 빌러의 텍스트 유형(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음)을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정보적 텍스트, 이어 작용적 텍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적 텍스트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the most appropriate)하다고 보았다” (Kelly 2005: 122, 필자의 번역임)

는데 학습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본 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에 따라 원문의 텍스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번역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첫 수업시간에는 강의를 통해 텍스트 유형론에 대한 이론적 틀을 학습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텍스트의 유형과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참고로 텍스트의 유형과 종류를 분석하는 훈련의 경우, 앞서 살펴 본 가르시아 이스끼에르도(2000)의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번역을 연습한다. 이 때 텍스트 별로 시행되는 번역실습의 횟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적 텍스트와 표현적 텍스트를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하되 전체 수업일수, 교사요소(teacher factor), 학습자요소(learner factor)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⁵⁾

그림 2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을 고려한 학부번역수업의 흐름(A형)



그렇다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될 학부번역수업의 틀을 구체적으로 구상

5) 리차드(Richards 2001: 101-3) 참고

해 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 학기를 16주로 규정하고, 8주차와 16주차에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수업의 대상이 입문단계에 있는 학부생들이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번역의 방향은 BA로 한정한다.

이제 주차별로 사용할 텍스트의 종류(variants)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교사마다 선호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의 종류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가령, 교사 A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정보적 텍스트에 포함시켜 교육하고자 하나, 교사 B는 제품사용설명서 대신 계약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활용할 텍스트의 종류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그림 2]에서 제시한 모델을 따른다면 본 연구가 제시할 교육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차별 교육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나마 [표 1]과 같이 구상해 보았다.

표 1 주차별 강의개요

주 차	내 용
1	강의소개,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 텍스트 유형론에 입각한 텍스트 분석
2	정보적 텍스트 #1: 일반 신문기사
3	#2: 보고서
4	#3: 제품사용설명서
5	#4: 학술논문
6	작용적 텍스트 #1: 연설문
7	#2: 일반 광고
8	중간고사
9	표현적 텍스트 #1: 에세이
10	#2: 단편소설
11	#3: 아동소설
12	미디어 텍스트 #1: 영화 자막
13	#2: 애니메이션 자막
14	혼성형 텍스트 #1: 경제·금융기사(은유 多)
15	#2: 기타
16	기말고사

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주차별 번역과제를 최소 일

주일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주차 수업(보고서 번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주차에 해당 텍스트를 미리 공개하고 학생들이 이를 번역하여 3주차 수업이 시작되기 2~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교사는 제출된 번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번역 오류와 문제점을 기록해 두고 수업시간이 되면 이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차별 번역과제와 함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수업의 구성이 텍스트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기 초에 ‘퀴즈’를 실시하여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⁶⁾ 중간고사의 경우 정보적 텍스트 또는 작용적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고, 기말고사는 표현적 텍스트, 미디어 텍스트, 혼성형 텍스트 중에서 선택하여 출제할 수 있다.

5. 강의운영 사례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 1학기 소속대학 영어영문학부에서 「텍스트 유형과 번역」(3학점)이라는 수업을 맡아 운영하였다. 2010년 처음으로 개설·운영된 본 강좌의 목표(aim)는 학생들이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번역전략을 연습”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번역자질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⁷⁾

본 강좌의 주요 대상은 영어 통번역 전공과정을 시작한 2학년 학생들이지만,⁸⁾ 필자가 운영한 수업(정원 30명)에는 최종적으로 2학년 18명, 3학년 7명, 4학년 8명, 그리고 대학원생 1명이 등록하였다. 이 중 대학원생(번역학 전공자)은 학교의 ‘선수과목’ 방침에 따라 정원과 관계없이 본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세 명은 학부의 ‘관례’에 따라 추가로 등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34명이 본 수업에 참여하였다.

6) 콜리나(Colina 2003: 74) 참고

7) 소속 대학교 2010 Course Catalog (p. 120)

8) 본교의 영어영문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 영어문학 전공자와 영어·통번역학 전공자로 분리된다.

수업은 주 1회(수요일) 운영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이클래스(e-class)를 통해 다음 주에 다룰 번역 텍스트를 공개하고 이를 과제로 부여하였다. 학생들은 매주 일요일(또는 월요일)까지 자신의 번역물을 제출하고 필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할 시놉시스(synopsis)⁹⁾를 작성하였다(Gile 2004). 수업이 시작되면 지정된 그룹¹⁰⁾이 자기 조의 번역결과물과 번역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번역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였다. 필자의 경우, 학생들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독려’, ‘논의정리’, ‘중재’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입하였다. 한편,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발표 그룹이 수업 이틀 전 번역결과물을 이클래스에 올려놓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본 수업을 조별활동 및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업을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의 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필자는 키랄리(Kiraly 2003)의 주장처럼 번역수업이 협력학습의 무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번역수업에 “사회구성주의 관점(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수업에서의 조별활동과 토론은 학생들의 번역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분야에서의] 전문기술(expertise)과 전문성(professionalism)은 이론의 활용(praxis) 및 대화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전문기술과 전문성은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자적(transmissionist) 접근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설 개발 및 실험, 토론 및 토의, [번역] 조직을 구성하고 있거나 구성하게 될 모든 조직원들

-
- 9) 번역 시놉시스란 번역과제와 관련해 번역교육자가 기록한 분석 노트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주로 번역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특이사항들을 기록해 둔다.
- 10) 그룹구성(grouping)은 학기 초(2번째 수업 후)에 실시하였으며 보통 3~4명이 1개 그룹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구성원들의 학년이 편향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였다. 발표를 맡은 조원들은 해당 주에 개별적으로 과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단일 번역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룹활동의 질을 높이고 조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평가(peer evaluation)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17, 필자의 번역입)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필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필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 중인 텍스트의 특징과 번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일례로 학술논문을 번역하는 경우 수동태·비인칭 구문이 학술논문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이유와 그 양상을 보여준 후 이를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난 후, 수업 전에 작성해 두었던 시놉시스를 기초로 학생들의 번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과 특이사항들을 소개했다. 물론 모범사례도 함께 소개하여 학생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번역의 경우 번역자의 이름을 삭제한 후 공개하여 해당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했다.

강의가 끝난 후 남은 시간에는 간단한 번역과업(translation task)을 새로 부여하고 이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번역과업은 대개 그 날 수업에 활용되었던 텍스트의 종류와 동일한 텍스트로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 이들이 다양한 번역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과업도 고려하였다. 가령, 출판된 번역서적을 직접 수정해보거나 특정 번역이론을 토대로 기존의 번역물을 분석·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¹¹⁾ 때로는 번역 콘테스트(translation contest)를 열어 학생 개개인이 다른 학생들의 번역을 심사하고 우수자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텍스트 유형과 번역」 수업은 전달자적 접근방식(transmissionist approach)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그룹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양방향적인(interactive) 수업방식을 강조해 왔다. 그럼 이제 필자가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운영해 온 주차별 강의주제(텍스트 유형 및 종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서 강의운영 사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11) 바르뜨리나(Bartrina 2005) 참고

표 2 「텍스트 유형과 번역」 주차별 강의주제¹²⁾

주차	강의주제(텍스트 유형 및 종류)	비고
1	강의소개 텍스트 유형론 소개: Reiss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2	Reiss의 텍스트 유형론 소개 및 텍스트 분석연습	그룹구성
3	정보적 텍스트 #1: 일반 신문기사	
4	#2: 보고서, 공문서	
5	#3: 제품사용설명서	퀴즈(이론점검)
6	#4: 학술논문	
7	#5: 계약서, 법률문서	
8	중간고사	이클래스 제출
9	작용적 텍스트 #1: 연설문	
10	어린이날	
11	작용적 텍스트 #2: 광고	
12	표현적 텍스트 #1: 일반 소설	
13	#2: 아동 소설	기말고사 안내
14	지방선거일	
15	혼성형 텍스트 #1: 금융·경제기사	
16	기말고사	

[표 2]는 지난 2010년 1학기에 필자가 실제로 운영했던 「텍스트 유형과 번역」 수업의 주차별 강의개요를 나타낸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달리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정보적 텍스트의 비중이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해당 학기에 공휴일이 2일(10, 14주차)이나 잡혀 있어 수업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둘째, 학기 시작 직전과 첫 번째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간단한 필요조사(needs analysis)의 결과에 따라 계약서 및 법률문서에 대한 번역연습(7주차)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학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공백은 미디어 텍스트 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했다. 셋째,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2주차 수요일까지 연장되어 학기 3주차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물론 위와 같은 수업구성에는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텍스트

12)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텍스트(12종 이상)는 지면의 부족, 저작권, 본 수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번역전략을 연습”하자는 본 강좌의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해 본다면 여기서 제시한 강의구성도 어느 정도 합목적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본 강의구성을 탄력적인 형태로 인지하고 향후 동일한 수업을 계획할 때 하나의 전례로 수정·활용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 강의평가 및 분석

필자는 「텍스트 유형과 번역」 수업을 운영하면서 수업의 효과, 용인성(acceptability),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삼각측정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활용하기로 하고 학기 중에 ‘수업관찰,’ ‘관련자료 분석,’ ‘강의평가 설문’ 등을 실시하였다. 수업관찰의 경우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 가운데 수업의 효용성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관련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각 그룹이 발표자료로 활용했던 ppt파일과 함께 학생들의 ‘번역과정’을 기록한 번역 코멘터리(translation commentary)¹³⁾를 이용하였다. 설문의 경우 본 수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을 제작한 뒤 마지막 수업시간(약 10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에 답변하도록 했다.

6.1 수업관찰

학생들이 텍스트 유형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번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먼저 발표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룹(70%)이 발표 전반부에서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을 한 번 이상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대부분

13) 학기 중 모든 학생들이 번역 코멘터를 2회 이상 작성하였다. 번역 코멘터리란 번역자가 번역을 마친 후 자신의 번역과정(translation process)을 직접 기록한 문서이다(cf. 번역일지(translation diary)). 보통 번역 코멘터리에는 번역자가 겪은 문제점, 해결방안, 번역에 대한 접근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García Álvarez 2007 참고).

은 번역을 하기 전에 텍스트의 유형과 종류를 따져보고 이에 따라 과제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원들은 해당 텍스트의 번역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공적인 번역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로 비추어 보아 텍스트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은 실제 번역과정에서 ‘거시전략(macro strategy)’으로 기능하여 크고 작은 문제해결(decision-making)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표자는 번역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비판과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텍스트 유형론을 사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텍스트 유형과 종류를 번역행위의 틀로써 활용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토론과정에서도 텍스트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한 논의가 종종 확인되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텍스트의 ‘유형(type)’과 ‘종류(varieties)’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실제 번역시 텍스트의 유형을 피상적으로만 검토했다는 점이다. 가령, 한 학생은 “소설이 표현적인 텍스트 종류라서 저는 부드럽게 번역하려고 했는데...발표자께서는...”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이를 위해 어떠한 판단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머릿속으로는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번역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학생들이 텍스트 유형론을 실제 번역행위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인지·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기 전반부(2주차)에 유형론에 대한 텍스트 분석 연습이 있었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다 그 내용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수업운영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6.2 관련자료의 분석

수업관찰은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후향적(retrospective)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텍스트 유형론이 학생들의 실제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찰적(introspective) 관점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보다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

다. 이에 필자는 각 그룹의 발표 ppt와 함께 학생 개개인이 제출한 번역 코멘터리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서자료가 제시하는 함의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먼저 보고서 번역(4주차 수업)의 발표를 맡았던 《그룹 2》의 ppt자료를 살펴보자. [그림 3]의 좌측 부분을 보면, 이 그룹이 보고서를 번역할 때 유의했던 사항들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그룹 2》는 과제로 부여된 텍스트가 보고서임을 파악하고 사전 검색(translation-oriented research)을 통해 이러한 텍스트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확인했다. 가령,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간결·정확해야 하며, 전문용어의 경우 그 번역어가 대부분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룹 2》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그림 3]의 오른쪽 부분)에서 비교 가능한 텍스트(comparable text)를 찾아낸 후 실제 번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의 형식과 고정된 어휘표현을 활용했다.

그림 3 《그룹2》의 발표 ppt 화면



번역 코멘터리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텍스트 유형론을 실제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대개 코멘터리 서두에는 텍스트의 유형과 종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는데 앞서 ‘수업관찰’에서 살펴 본 것처럼, 텍스트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도는 전반적인 번역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 학생은 자신의 광고번역(11주차)에서 “이 광고는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고, 보통 광고가 독자[수용자]에게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므로 비슷함(sic.)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과감히 각색”했다면서 “이 같은 작용적 텍스트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6.3 강의평가 설문

마지막으로 필자는 비교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설문지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본 설문을 기말고사(16주차) 당일에 시행하여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의 형식을 띠게 하였으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괄평가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사안들(Richards 2001: 291-93)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과 유관성이 높은 것들을 선택해 구성하였다(부록 참고).

먼저 1번 문항(“수업의 진행방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은 ‘교수법의 적절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참가 학생 34명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평균 4.67/5점)는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들은 “우리 학생들이 발표준비하고 발표하니까 지루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수업 방식이 참 좋았다,” “기존 수업방식에 비해 활발한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양방향식 번역수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1번 문항에 대한 답변 가운데 텍스트 유형(이론)에 대한 언급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다. 가령, “발표를 준비할 때 이론을 처음부터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text type의 종류에 따라 판이해질 수 있는데 이론과 실습의 개념을 잡을 수 있어서,” “이론과 실천이 융합된 과목,” “초기 이론 설명은 번역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었고,” “유형별 번역방법과 전략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퀴즈를 통해 이론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다,” “여러 유형의 텍스트를 번역해 보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었다” 등이 그것이다.

2번 문항(“텍스트 유형을 기반으로 한 번역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4.29점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문항과 관련해 응답자 전원은 3~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이 중 3점(“보통이다”)을 준 학생은 총 7명이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식이어서 많이 기억에 남지는 않았던 것 같다,” “텍스트를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종합해 보면, 텍스트 유형론에 대한 강의와 분석이 일부 학생들에게 다소 미흡하거나 피상적이었던 것으로 분

석된다. 이는 앞서 ‘수업관찰’에서 도출한 결론과 일치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업 구성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3번 문항(“과제로 부여된 텍스트들은 번역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은 ‘학습교재’와 관련된 사안으로, 학생들은 이 문항과 관련해 4.81점(1명 무응답)을 부여하였다. 학생들의 주요 응답을 살펴보면, “텍스트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번역이 이리도 다양할 줄은 몰랐다,” “텍스트 종류가 다양해서 매번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텍스트 종류를 실습해 봄으로써 번역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듯하다,” “법률텍스트는 매우 신선했다” 등이 있었다. 특히, 답변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어휘를 살펴보면, [유형·종류가] “다양하다,” “새롭다,” “다르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 과목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텍스트의 ‘다양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4번 문항(“텍스트의 선정과 배열이 적절했는가”)과 관련해서는 4.60점(1명 무응답)이 기록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텍스트의 난이도 배열이 좋았다,” “유형별로 하니까 그 유형에 적응하고 나서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니 좋았다,” “처음에는 직역을 많이 요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내 생각을 적용해서 번역하니 들어가는 느낌이였다,” “상대적으로 쉬운 informative부터 점차 기교를 사용하는 expressive까지 접한 것은 좋았던 듯,” “만약 Informative를 맨 나중에 했다면 번역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었을 겁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혼란이 없었다,” “informative text를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 분야의 text가 가장 많은 건 적절하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번역을 초반부에 배치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에 임할 수 있었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특이사항도 발견되었다. 무려 세 명의 학생이 ‘사실 저런 순서인지 지금 알았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유형이 달라지면서 난이도가 조금 들쭉날쭉해지는게 힘들 때가 있었다,” “점점 의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아갔는데 반대여도 괜찮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텍스트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Richards 2001: 150). 다시 말해 정보적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번역하기 쉽고 표현적 텍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다. 결국 학생들은 텍스트의 유형과 종류가 번역의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편,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텍스트의 배

열 순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강의구성과 진행에 대한 필자의 홍보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번역의 난이도와 함께 수업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제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의 장·단점(각각 5, 6번 문항)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항을 마련했다. 이 중 수업의 장점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들과 대동소이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수업의 단점 및 제언과 관련해서는 향후 강의구성에 참고할 만한 의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이론수업이 좀 더 있었으면 $\pi\pi$ 합니다,” “동일한 텍스트 종류를 2번씩 했으면 합니다,” “토론의 결론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다,” “토론시 교수님의 코멘트가 많았으면 해요,” “텍스트마다 유용한 사이트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search보다 ‘번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할 때 미리 접근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해보는 텍스트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주별 과제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요,”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힘들었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검토해 보면, 일부 학생들은 번역에서도 수학처럼 ‘명쾌한 답’을 원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상의하달식(top-down) 학습방법에 익숙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번역을 위한 검색작업이 번역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오히려 이를 시간낭비로 인식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번역 교수법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향후 동일 과목의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본 수업에서의 이론 부분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좀 더 강화하고, 과제 부여시 학생들의 필요와 번역능력을 좀 더 감안해 과제의 분량, 종류, 성격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을 바탕으로 학부의 번역수업을 구상·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수업관찰, 자료분석, 설문지법 등을 통해 평가·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라이스의 유형론을 기반으로 한 본 수업의 구성 방

식은 결과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용인도 역시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보적’→‘작용적’→‘표현적’으로 이어지는 텍스트 유형의 배열은 학부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상당 부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접해봄으로써 단기간 내에 자신의 번역경험을 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었던 점은 본 수업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협력학습’의 효과와 함께 번역수업에서의 이론도입의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수업의 운영 결과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론에 대한 학습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때론 너무 피상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수업구성방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텍스트 유형의 배열 순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다. 또한 번역과제의 난이도와 분량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되어 이 문제는 향후 강의구성시에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론을 학부의 번역교육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일부 독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해당 과목을 신설한 후 이제 한 학기만을 운영한 터라 그 구성 및 운영 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본 수업과 관련해 독자, 동료교사, 학생 등으로부터 유용한 제언이 있다면 필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수업구상 및 운영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참고문헌

김순영 (2006)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목의 도입」,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27-43.

Bartrina, Francesca (2005) ‘Theory and Translator Training’ In Martha Tennent

14) 본 논문의 심사위원도 지적하였듯이, 단 한 번의 수업만으로 사례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의 성향이나 번역능력 등과 같은 요소들도 사례연구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ed) *Training for the New Millennium: Pedagogies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p. 177-8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olina, Sonia (2003) *Translation Teaching: From Research to the Classroom (A Handbook for Teachers)*, New York: McGraw-Hill.
- Emery, Peter G. (1991) 'Text Classification and Text Analysis in Advanced Translation Teaching,' *Meta* XXXVI(4): 567-77.
- García Álvarez, Ana María (2007) 'Evaluating Students' Translation Process in Specialised Translation: Translation Commentary,'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9: 139-163.
- García Izquierdo, Isabel (2000) 'The Concept of Text Type and Its Relevance to Translator Training,' *Target* 12(2): 283-95.
- Gile, Daniel (2004) '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as a Translator Training Tool,'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 2-20.
- Hatim, Basil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Essex: Longman.
- Hatim, Basil & Ma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Essex: Longman.
- Hatim, Basil & Mason, Ia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New York: Routledge.
- Kelly, Dorothy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A Guide to Reflective Practice*, Manchester: St. Jerome.
- Kiraly, Donald C. (2003) 'From Instruction to Collaborative Construction: A Passing Fad or the Promise of a Paradigm Shift in Translator Education?' In Brian James Baer & Geoffrey S. Koby (eds) *Beyond the Ivory Tower: Rethinking Translation Pedagogy* (pp. 3-27),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Munday, Jerem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Erroll F. Rhodes, Trans.), Manchester: St. Jerome.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 Reiss, Katharina (2004) Type, Kind and Individuality of Text: Decision Making in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s* (2nd ed, pp. 168-79) (Susan Kitron, Trans.), New York: Routledge.
- Richards, Jack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P.

부록

《텍스트 유형과 번역》 강의평가 설문

본 설문은 2010년 1학기에 진행된 《텍스트 유형과 번역》 수업의 효과, 용인성,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처리되며, 결과는 향후 강의운영 및 관련연구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1. 본 수업의 진행방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텍스트 유형(Reiss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번역수업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선정된 개별 텍스트들은 번역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일반신문기사, 보고서, 제품사용설명서, 법률문서, 학술논문, 연설문, 광고, 일반소설, 아동소설, 비유적 표현이 풍부한 경제기사 등)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사용한 텍스트의 “배열”과 “선정”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nformative → operative → expressive를 기반으로 개별텍스트 선정)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본 강좌에서 특히 좋은 점이 있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6. 본 강좌를 위한 제언(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n Undergraduate Translation Course Based on K. Reiss's Text Typology:
A Case Study**

Lee, Sang-Bin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uses K. Reiss's text typology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 undergraduate translation course that could serve as the basis of other translation courses. While Reiss initially categorized the texts into "informative," "operative," "expressive," and "multi-medial," the author designed such a course in a manner that reflects an additional type, namely "mixed form."

In building the skeleton of the course, the author determined the sequence of the five text types and the kinds of text variants in consideration of the learners' competence and other relevant factors. Then he offered the course for 34 students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2010 in a way that emphasizes cooperative learning.

During and after the course, the author made evaluations using three different types of methodologies. First, he observed the clas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 students understand and use Reiss's text typology. Second, he looked into the students' translation commentaries and presentation materials to provide a glimpse of how they apply the theory to their practice. Third, h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seek the students'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course.

▶ Key Words: undergraduate translation course, Reiss's text typology, text types, text variants, course evaluation

이상빈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 전공 조교수

sblee@dongguk.edu

관심분야: 커뮤니티 통역, 법률번역, SFL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